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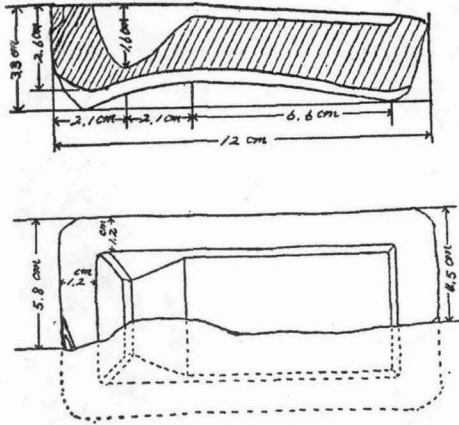
# 靑磁燈蓋과 靑磁硯

崔 淳 雨

近來에 본 高麗時代의 靑磁製品中에 보기 드문 물건 두어가지가 있어 여기에 紹介하고자 한다.

하나는 지난 五月달에 全北 扶安郡 柳川里에 있는 高麗古窯址를 踏查했을 때 筆者가 發見한 靑磁硯이고 또 하나는 이미 展覽會에도 出陳된 일이 있어서 一部에 알려져 있는 洪性夏氏 所藏의 靑磁象嵌牡丹文杯形燈蓋이다.

前者 靑磁硯은 扶安郡 柳川里 靑磁古窯地帶內의 大略 野守健氏 調査當時 十二號窯址附近으로 생각되는 地表에 露出된 것을 採集한 것인데 이 靑磁硯은 左側이 縱斷으로 約 四分程度 缺失된 斷片이기는 하지만 素朴하고도 俗氣가 없어 愛着이 가는 물건이다. 窯속에서 좀 휘어져서 不整形을 이루고 있으며 이



벼루의 断面과 平面復原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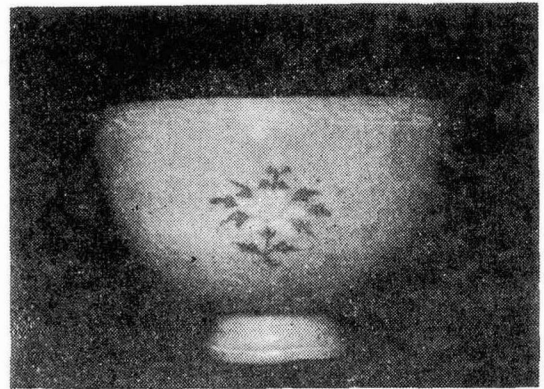
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렇다 할 技巧나 식장이 없고 竹刀로 無心하게 깎아 만들었는데, 그 모서리도 대범하게 모퉁이를 해서 매우 淳朴해 보인다. 墨을 가는 硯心部와 벼루 밑바닥에는 施釉하지 않아서 胎土에 함유된 鐵分이 적은 赭色으로 發色되어 있으며 釉藥은 그다지 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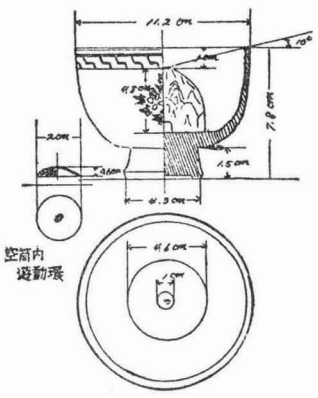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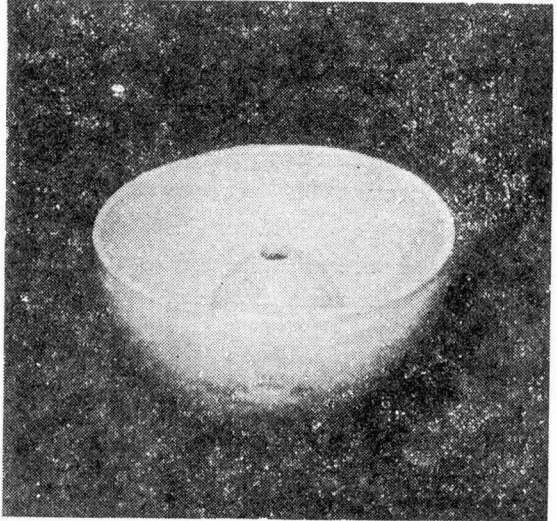
選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灰綠系의 두꺼운 釉에 水裂이 全面에 나타나 있다. 이 벼루의 年代를 斷定하기는 힘드나 伴出 象嵌靑磁破片 例로 보아서 아마도 十三世紀頃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.

後者 靑磁象嵌牡丹文杯形燈蓋은 側面에서 보면 一見 扁扁한 托蓋으로 보기 쉬운 平凡한 外形을 가지고 있다.

이 杯形器의 內面에 붙여세운 橢圓半切形 空筒만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酒杯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릇

으로는 한 두가지 의문도 없지 않다. 燈心 罅이로 볼 수 있는 이 橢圓形空筒은 杯形과는 따로 만들어서 附着시킨 것이며 이 空筒의 下端部에 四個所의 작은 구멍을 두어서 空筒 上端의 燈心 구멍과 內通되어 있다. 이 구멍은 杯形 그릇에 부은 기름이 이 구멍을 통해서 燈蓋 罅에 잠기도록 考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.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이 燈心 높이가 杯形器의 테두리 보다 1cm나 앞서 燈불을 켜본다면 光線이 아마 이 테두리에 가려서 約 10度 角度로 위로만 비치게 될 것이다. 또 이 燈心 空筒안에는 素土로 된 遊動物 하나가 들어 있는데(別圖) 이것은 直徑 2cm 程度의 외곽 銀杏葉形의 중앙에 구멍을 뚫은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高火度의 陶土로서 구어진 듯 흔들어 보면 사뭇 방울소리를 내고 있다. 이러한 장치들이 이 異形器의 用途에 있어서 무슨 役割을 하는 것인지 判斷하기 힘들고 또 이 杯形器에는 아마 托이 따로 具備되었으리라고도 짐작이 되지





있다. 以上考察한 바 이 容器的 用途에 關해서는 燈臺로 斷定할 條  
件이 具備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或說을 참작하면 一種의 酒器 또는  
香罍이 또는 或種의 醫療器 等 異說이 있으나 이 亦是 莫辨 일이라고

할 수 밖에 없다. 象嵌  
技法釉調 等으로 미루어  
이 그릇의 年代는 大略  
十三世紀頃 것이 아닐가  
(二九六〇、一〇、八)

만이 亦是 分明한 것은  
아니다. 그리고 磁質로  
보아 이 容器는 外形으  
로 보면 靑磁象嵌 그릇  
이지만 燈心 楕圓形空筒  
만은 複瓣꽃봉오리 모양  
의 靑磁陽刻이고 釉調도  
外部의 杯形보다는 高음  
게 發色되어 있음에 注  
意된다. 또 杯形의 外  
面에는 그 口邊에 雷文  
白象嵌, 그 胴部三面에  
는 黑白牡丹象嵌이 장식  
되었고 器의 內底와 굽  
다리 밑에는 施釉하지  
않아서 赭色을 보이고

### 論山陽村面の支石墓群

金元龍

여기 支石墓群은 六·二五動亂 前에 實査한 것인데 그後 再調査한  
다면서 뜻을 못이루고 있고 其當時 撮影한 寫眞도 어디 들어 갖는지 찾  
을 길이 없으나 多幸히 分布圖만은 남아 있어 여기서 그 存在만을 記錄  
해 둘까 한다.

支石墓群의 確實한 地點은 論山郡 陽村面 新基里의 고인돌部落(一名  
高岩部落)이며 支石墓가 部落의 이름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은 別로 새  
로울 것이 없으나 「고인돌」이라고 그대로 使用되고 있는 것은 滋味있다.  
이 部落은 湖南線 連山驛에서 全北 益山郡 佳川里로 가는 自動車 道路를  
따라가다가 連山에서 約一二km쯤 되는 仁川里 가까이 있으며 全北과는  
山脈을 하나 사이에 두고 接하고 있다.

이 支石墓群은 그 해 五月頃 隣接인 九子谷面에 居住하고 있는 李大炯  
氏(當時 서울大 文理大生)가 그 存在를 忠南道廳에 報告한 것이며 文教  
部의 委囑에 依해 筆者는 그 해 八月 下旬에 現地를 踏査하였다.

支石墓의 總數는 二十一基며 크게  
三群을 이루며 南北으로 흐르는 仁川  
(있내)이라는 小江流에 平行하여 있다.

이 地帶는 江邊의 砂土로 덮인 平地  
帶이며 一帶가 모두 밭이고 거기에는 조  
그만 部落이 있는데 支石墓는 모두  
이 밭 가운데나 人家를 안에 있었다.  
二十一基中 七基는 밭속에 거의 埋沒  
되어 있고 나머지 十四基도 그中二  
基를 試掘해 본 結果로 보면 上石만

